

교육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지 선정

# 경북대·전남대, 2700억 규모 산학연 혁신허브 조성

대학 유휴부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북대 1204억, 전남대 1500억 투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성장 기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입주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내용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수행할 대학으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선정됐다. 두 대학은 내년 상반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조성 착공에 들어간다. 두 대학의 이번 사업 규모는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각 1204억원, 1500억원으로 총 2704억원에 달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는 경북대와 전남대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경북대·전남대에 산학연혁신허브 조성



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전남대 광주캠퍼스 전경

/전남대

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에 위치한 경북대는 2030년까지 1204억원을 들여 부지 3만2000㎡ 규모에 연면적 2만2000㎡의 산학연혁신허브를 신축한다.

2027년까지 기업 공간(산학연)과 연구공간(R&D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을 4개 섹션으로 나눠 ▲산학연 혁신허브(ACT 메인센터) ▲R&D센터 ▲스타트업 스퀘어 ▲그라운드-X(운동시설·아외공연장)로 복합 조성한다.

이어 2단계로는 2030년까지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인접하고 대구중심지역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생활환경과 도시기능 접근성이 모두 양호하다. KTX대구역과 대구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이 근접해 교통여건 또한 좋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에 있는 전남대는 1500억원을 투입해 부지 3만5609㎡에 산학연혁신허브를 연면적 2만2350㎡ 규모로 신축한다.

총 3단계로 나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산학연 혁신허브 등 기업공간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한다.

2단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연계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전남대 또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인접하고 광주 도심에 위치해 생활환경과 도시기능 접근성이 양호하고, 오는 2024년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2개역이 개통하는 등 접근성이 개선돼 주변 여건이 좋다. 광주역과 인접한 데다 광주송정역 셔틀도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대와 전남대 사업

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게 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공간으로”

이 사업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캔달스퀘어나 스탠포드대 인근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았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캠퍼스 등 3개 대학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한남대,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지난해 9월 산단 지정을 마치고 12월 착공했으며, 강원대는 지난해 12월 산단 지정에 이어 이달 착공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됐으며,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2기 학생인권 보호 종합계획 수립

10개 정책, 20개 과제 추진  
성소수자 학생 상담 등 지원

앞으로 서울 초·중·고에 다니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 등으로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배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 등 서울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한다.

이날 교육청이 공개한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

의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성소수자학생 ▲학생선수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연수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 속옷을 규제하는 학칙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학칙 개정 기관인 학교가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겼다.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 명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담기지 못했다.

학생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 교육청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한다. 각 조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업체계 구축을 권장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문화학생 보호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사안 발생 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을 포함한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를 개발해 학교별 인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연구총 한신대 총장(앞줄에서 다섯번째)과 대학 관계자들이 평화기도회를 진행한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신대

## 한신대, 미얀마 희생자 추모 기도회 열어

연구총 총장 등 교직원 참석

한신대학교는 지난 30일 경기캠퍼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류동운 열사 추모비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기도회는 연구총 총장, 김재성 교목실장 및 한신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심 인권센터장의 기도, 나현기 교목의 성경봉독, 김재성 교목실장의 말씀선포, 연구총 총장의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기도회 장소는 '류동운 열사 추모비' 앞이다. 한신대 79학번이던 류동운 열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뒤 투쟁하다 사망했고 이후 1986년 한신대 경기캠퍼스 교정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비인 '류동운 열사 추모비'가 세워졌다.

한신대 교목실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 덕성여대-동북4구문화원 지역문화연구 활성화 맞손

정기 학술대회 등 대중화 사업추진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산하 지역문화연구센터)와 동북4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문화원은 지난달 31일 덕성여대 오스카라운지에서 서울 동북4구 지역문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동북 4구에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그간 학술연구와 대중화 사

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미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는 동북 4구 문화원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서울 동북 4구 지역문화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정기학술대회 개최 ▲서울 동북 4구 지역문화 학술자료의 공동 조사 및 연구 ▲서울 동북 4구 지역문화 학술자료의 전산화·콘텐츠화 추진 등이다. /이현진 기자

## 이대목동병원

### 신동우 전문의 교원 임용

이대목동병원은 뇌혈관 시술 전문의를 확충해 24시간 뇌경색 응급시술 능력을 강화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뇌경색 혈전 제거술 전문가인 신동우 전문의를 신경과 신규 교원으로 임용해 의료진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신 교수는 최근 2년 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하며, 300건 이상의 뇌경색 응급시술 환자의 치료에 참여한 전문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중앙대, 최우수 교원양성기관 선정

중앙대 사범대학이 세 차례 연속으로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사범대학이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대·교원대 등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

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다.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 3개 영역, 26개 지표를 토대로 교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1998년 처음 시작돼 올해까지 총 5개 주기로 나눠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앙대 사범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3주기 평가는 물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4주기 평가에서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